

‘하나뿐인 내편’ 종영, ‘정통 가족극’ 의미 남겼다



‘하나뿐인 내편’이 종영했다. 꿈이지만, 전연령대 시청자가 즐길 수 있는 가족극으로서 의미를 더하며 1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야 유종의 미를 거뒀다.

꿈의 시청률 50% 넘지 못했지만 유종의 미 거뒀

에 따르면 17일 종영한 KBS2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김사경 극본, 홍석구 연출) 105회와 106회는 전국기준 42.8%와 48.9% 시청률을 기록했다. ‘하나뿐인 내편’은 꿈의 시청률인 50%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10일 102회가 49.4%를 기록하며 지난 6년간 방영된 지상파 드라마 중 최고 기록을 썼다.

‘하나뿐인 내편’은 최수종, 유이, 이장우, 윤진이 등이 출연했던 KBS 대표 가족극이다. ‘황금 시간대’라 불리는 주말 저녁 시간대에 편성돼 시청자들을 만났고, 높은 시청률을 연일 경신하며 새 역사를 쓰기도 했다. 비록 막장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받았으나, ‘하나뿐인 내편’은 전 연령층이 시청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이야기 전개 등을 통해 50%에 가까운 시청률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시청자들의 막장 지적도 이해가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 강수일(최수종)은 28년 전에 뒤집어졌던 살인 누명으로 인해 딸인 김도란(유이)과 사위인 왕대륙(이장우)에게까지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지 못했고, 게다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택한 간식 수술 후에도 깨어나지 못하는 등 약재는 모두 강수일에게로 향했다. 뿐만 아니라 딸인 김도란은 결혼 후 당당한 모습은 모두 잃은 채 시월드에 휘둘리는 며느리로 전락, 시청자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이혼 후에도 치매에 걸린 시할머니 박금병(정재순)의 병간호를 하고, 전 시아버지인 왕진국(박상원)이 뻔뻔하게 김도란을 찾아가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들에서 시청자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쥘 정도로 분노했다.

드라마전체를 뒤훑을 막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내편’은 전 연령층에 사랑받는 작품이었다. 최근

드라마들은 로맨스와 장르물 등 특정 장르들로 획일화되고 있는 상황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국민드라마’가 부족하던 시점에서 단순한 전개를 들고 등장한 ‘하나뿐인 내편’은 환영을 받았다. 몇 회를 건너뛰더라도 드라마를 보면 5분 안에 직접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인 내편’의 큰 장점. 자극적인 악행들과 답답한 리브라이언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나이가 금금해서’ 더 보게 되는 것 역시 시청자들의 마음을 잘 간파한 결과다.

결말 역시도 눈에 보이는 구조와 시대착오적 전개로 마무리됐다. 이별했던 왕대륙과 김도란은 재결합했고, 강수일은 재심 청구를 통해 누명을 확실히 벗었다. 여기에 장다야(윤진이)는 남편 왕이록(정은우)의 바람을 용서하는 등 답답하면서도 훈훈한 결말을 맞이한 셈이다. 비록 ‘하나뿐인 내편’은 50% 돌파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정통 가족극’으로 의미를 남겼다.

영화 ‘로망’, 남 얘기 아닌 나의 가족·우리 사회 이야기



배우 이순재와 정영숙이 영화 ‘로망’으로 가슴 아릿한 로맨스를 선사했다. 연기 경력 도합 ‘114년’ 베테랑 배우들의 노련한 연기 내공으로 ‘동반 치매’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감동과 묵직한 울림을 자아냈다.

1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는 영화 ‘로망’ 언론배급 시사회가 열렸다. 연출을 맡은 이창근 감독과 주연 이순재, 정영숙, 조한철, 배혜선 등이 참석했다.

‘로망’은 정진숙 놓쳐도 사랑줄은 피옥 쥐고 인생 첫 로망을 찾아 떠나는 45년 차 노부부 삶의 에환이 스민 아른아른한 로맨스물이다. 고풍화 치매 사회를 담담히 직시하고 사랑이라는 때스한 슬루션을 환기하는 작품. 지금껏 영화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부의 ‘동반 치매’를 소재로 대한민국에 노년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새로운 화두를 던진

이창근 감독은 ‘로망’에 대해 “70층에 들어선 노부부가 ‘동반 치매’라는 시련과 역경을 겪는다. 지금의 기억은 사라지고 아이러니하게 예전 기억은 또렷이 떠오르면서 잊고 있던 이들의 로망을 되새기는 작품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치매’를 화두로 던진 이유에 대해 “부모님들이 몸과 마음이 아픈 와중에도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하지 않나.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다”라고 진정성을 전했다.

이순재와 정영숙은 각각 조남봉, 이매자 역할을 맡아 45년 차 부부로 활약했다. 70대 치매 부부의 로맨스와 더불어, 20대 신혼부부와 30대 연인 부부까지 일생의 타임라인을 망라하는 스토리를 그렸다.

이순재는 “조남봉의 거부장적인 면이 나오지만 결국 이 드라마는 노부부의 사랑이 비탕이 된 영화다. 결정적인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결국엔 부부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황혼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라며 “역시 남편은 마나님(부인), 마나님은 남편밖에 없는 걸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로망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정영숙은 출연 이유에 대해 “요즘 이런 휴먼 드라마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순재의 말처럼 좋은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치매 연기를 소화한

것에 대해 “제 가장 측근에 있는 여의사도 치매가 왔다. 그 동기를 보면 혼자 외롭게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치매가 온 것이었다”라며 “나이 들어 혼자 있는 건 아조진인 것 같다. 항상 즐겁게 마음먹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 조금이나마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치매 부모를 둔 아들 조진수 역의 조한철은 “치매는 생각할수록 무서운 병인 것 같다. 우리가 가족,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같이 세월을 쌓으면서 만든 히스토리 때문이지 않나. 그런데 치매는 이것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다.

그는 “저희 어머니도 실제로 (치매) 부병 중이시다”라며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니 정말 무섭고 가슴 아팠다. 치매란 병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하고 준비해나가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조진수 아내 김정희 역의 배혜선은 “제가 ‘로망’에서 뭘 했다고 보지 않나,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었다”라고 애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배혜선은 “‘로망’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라며 “남 얘기가 아니라 내 가족, 나의 이야기, 내 친구, 나아가 우리 사회 이야기가 되어서 크게 와닿았다. 슬픔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뜻밖의 장면에서도 울컥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영화 전반에 깔려 있다.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부터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로망’은 오는 4월 3일 개봉한다.

‘쇼! 오디오자키’, 라디오+TV 합친 신개념 예능



‘쇼! 오디오자키’가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지난 17일 오후 방송된 tvN ‘쇼! 오디오 자키’에서는 첫 오디오 LIVE를 진행하는 박명수, 성시경,

소유진, 봄, 몬스타 엑스의 주현민, 기현, 원호의 모습이 그려졌다. 17년차 박명수부터 첫 오디오 진행이라는 몬스타 엑스까지 다채로운 라인업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살린 살린 코너들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날 강일도 양양으로 떠난 ‘쇼! 오디오자키’는 첫 편성국장을 맡은 박명수의 편성에 따라 봄이 ‘봄바스’로 포문을 열었다. 오전 7시였지만 봄은 특유의 에너지로 팀워크 쇼는 물론 즉석 전화연결도 진행하며 웃음을 안겼다.

이어 소유진의 ‘소유진의 스위트룸’이 온에어됐다. 소유진은 지역 손맛고수에게 전화연결만으로 레시

피를 전달받아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 룩방을 진행했다. TV지만 오디오만으로도 이미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하며 눈과 귀를 한꺼번에 홀렸다.

이어진 코너는 박명수의 호락호락쇼. 박명수는 트로트계 신성들을 초대해 대결을 벌였다. 이들은 부스박으로 나가서 순식간에 양양 해변을 트로트 공연장으로 만들었다.

비룡을 이어받은 성시경은 ‘그대 곁에 성시경입니다’ 코너를 통해 감미로운 목소리를 드러냈다. ‘라디오가 너무 좋다’는 성시경은 제대로 AS의 면모를 보였다. 베키 함께 꾸민 ‘그 남자 선곡 그 여자 노래’ 코너는 연예상담에 벤의 감미로운 라이브가 더해지며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부동산 예능 ‘구해줘 홈즈’, 패러디 티저 공개 ‘웃음 빵’



MBC ‘구해줘 홈즈’ 첫 방송을 더욱 궁금하게 만드는 티저가 공개됐다. ‘구해줘 홈즈’는 연예인 군단이 의뢰인 대신 집을 찾아주는 예능 최초 부동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리얼 발품 중개 배틀’을 표방하며 지난 2월 4~5일 설 연휴

이들간 방송됐다. ‘구해줘 홈즈’는 시청자의 성원에 힘입어 정규 편성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오후 10시 35분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해줘 홈즈’만의 특징과 유쾌한 웃음이 가득 담긴 2종의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파일럿 당시 팀장으로 활약한 박나래와 정규 편성 후 출연을 예고한 김광규가 각각 능청스러움으로 30초를 꽂았다.

공개된 티저는 각각 박나래의 CF 패러디, 김광규의 영화 패러디 등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됐다. 김광규 편은 영화 ‘친구’ 속 김광규의 트레이드마크인 대사 “그거 아무지 뭐하시노”로 시작된다. 김광규는 맛깔스러운 부산 사투리로

“집 찾으신다고? 마음 단단히 묵고 딱 하나만 명심해. 구해줘 홈즈. 너도 이제 집 구할 수 있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다.

박나래 버전의 티저 또한 웃음을 유발한다. 박나래는 아찔하고 뇌쇄적인 표정과 말투로 “집 찾기 힘들다고? 집 구하는 게 별거야? 아, 너도 구할 수 있어. 딱 하나만 기억해. 구해줘 홈즈”라고 말하며 캐리커처를 비하한다. 박나래는 절묘하게 패러디하며 ‘구해줘 홈즈’ 프로그램 제목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재미와 실속, 주거에 대한 새로운 접근까지 폭 넓게 담아낼 ‘웃음 빵’ 예능 ‘구해줘 홈즈’는 오는 31일 월요일 오후 10시 35분 전파를 탄다.

오늘의 순세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음력 2월 13일)



▶**세끼** 하는 일이 원만하게 진척될 수 없지만 진실을 제대로 하고 손익계산을 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일관한다면 인정받는 날이 될 듯. 1, 8, 9월생 아는체 하지 말고 성의껏 행동하면 모든 것이 유리. 가정 또한 원만하게 유지될 듯.



▶**세끼** 하는 일에서 노력에 비해 실적이 오르지 않는 때다. 성급하게 나서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제함이 좋겠다. 그래도 오늘은 순조롭게 풀리는 행운의 날. 철강, 의류, 투자업은 길. 자신을 과대평가 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 있겠다.



▶**세끼** 한꺼번에 결말지으려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모든 것을 다 털어 놓고 이야기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니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기도 하다. 0, 3, 4, 5 성씨 모든 것을 한번에 거머쥐려는 욕심이 더 큰 악운을 만들 수.



▶**세끼**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결정을 못 보는 것이 있다. 다시 한 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임하라. 부담스러운 일에서 악점이 드러난다. 강한 의지로 사물을 본다면 무서울 것 없다. 1, 3, 5, 7 월생 자신감을 크게 품고 도전하면 기쁨을 맛볼 수 있겠다.



▶**세끼** 억지로 애써 봐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애정문제이니 너무 과시하지 말 것. 제3자의 말을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퇴보시키는 것임을 알아. 7, 8, 9 성씨 타산을 앞세우지 말고 남에게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



▶**세끼** 이제까지 쌓은 능력이 성과를 좌우하는 때다. 이기적인 생각은 역효과를 남게 되니 생각나는대로 행동하면 좌절을 맛볼 수 있음을 알아. 5, 7, 11월생 0, 3, 8 성씨는 선후배 간에 소홀하다고 상대를 미워하고 어려움 속에서 교훈을 얻을 것.



▶**세끼** 단비가 알맞게 내리 초목이 성장하는 격. 여성은 계획했던 일 북, 남쪽에서 동업자를 만나면 성취할 운이다. 4, 5, 9 월생 사소한 문제로 애정에 금이 갈 일이 있으니 언행을 조심함이 좋을 듯. 빨간색은 삼가고 연한 색 의상을 착용하라.



▶**세끼** 0, 3, 8 성씨 목마를 자가 생물을 만나는 격으로 어려운 일이 귀인을 만나 달성될 운이다. 애정에서 감정을 앞세우면 몽고생 마음고생 하게오니 참는 것이 상책이다. 1, 3, 7월생 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것. 파란색이 길조.



▶**세끼**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5, 11, 12월생 손재수가 있든가 망신수가 염려되는 날이니 말과 행동을 조심할 것. 사업가는 7, 0, 3 성씨와 손잡고 힘을 합함이 좋고 푸른색이 용기를 더하니 착용하라.



▶**세끼** 오전과 오후가 상반될 운으로 비록 재물을 얻는다 해도 0, 3, 4 성씨는 손재가 염려되어 주위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다. 애정운은 순탄하겠으나 2, 7, 11월생 여성은 연한 화장이나 의상으로 변모한다면 더욱 좋다. 0, 3, 8, 12월생 길행.



▶**세끼** 비교적 진행되는 일이 순조롭다고 생각되지만 보이지 않게 조금씩 수입이 줄어들 운수. 3, 8, 12월생 거래처에 물건을 줄 때는 선택을 해서 주어야만 후일 손해가 없겠다. 7, 8, 0 성씨 문서 처리에 길한 날.



▶**세끼**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망동하다가 남에게까지 해를 끼칠 염려 있다.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고 근신함이 좋을 듯. 5, 6, 9월생 등, 북쪽은 삼가고 노란색은 자신감을 없애니 주의하라. 0, 3, 8, 12 성씨는 퇴근 후 한눈 팔지 말 것.